

野 대표경선 막바지...당권주자들 일제히 호남행

“뒤통민심·당심언자” 광주·전남·전북 잇따라 방문 KTX 서대전역 경유·애틀별법 등 현안 의견 수렴 文·朴, ‘물 변경’ 책임 공방...오늘 광주서 방송 토론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경선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내려가 ‘뒤통’ 정찰전에 나섰다. 이날 권리당원 ARS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당원 숫자가 가장 많고, 당의 뿌리라는 상징성을 지닌 호남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운전장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광주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전대 기간에만 벌써 5번째 광주 방문이며 전남·북을 포함해서 서울 연속 호남 일정을 잡은 것이다. 박지원 후보도 이번 전대 레이스 들어 6번째

로 전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열을 다진 뒤 광주로 향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원 공개간담회, 언론 인터뷰,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방문 등의 수도권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로 내려갔다. 특히 4일 오전 광주에서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려 전국의 당원들의 눈길이 광주로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은 마지막 TV토론이어서 후보들은 이전 어떤 토론회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들은 광주의 민심과 당심을 얻지 않고는 경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날 오후 일정의 상당 부분을 토론 준비에 할애했다.

더욱이 이번 방송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각각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후보와의 토론을 이끌어가는 후보자 주도 토론회를 늘리기로 해 후보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최근 호남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처리 문제를 놓고 후보자 간 확실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선을 코앞에 두고 경선물을 변경하면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책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10여년 동안 새정치연합의 중심지역이었음에도 대권주자는 물론 당 대표도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후보자 간에는 전날 일당락된 ‘물’의 전쟁 여진이 계속됐다. 문 후보는 광주 간담회에서 “시행세척에 지지후보 없음”에 대한 합산 규정이 없는데 당선

관위가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려 했다가 문제가 되려는 것을 전준위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박 후보는 SBS와 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내일 투표가 있는데 오늘 규정을 바꾸는 정당이 어디 있나.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다”라며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맹공했다. 전주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분이 어떻게 투표 하루 전에 물을 바꿔버리는가”라며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이인영 후보는 전대에서 문·박 후보 사이의 충돌만 부각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당내 문제보다는 민생과 통일 공약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행보에 공을 들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최고위원 후보 광주 간담회 “경선물 변경 부적절 문재인 대세론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후보는 3일 전남의 여론조사 경선물 변경과 관련, “후보 간 유·불리를 떠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경선을 코앞에 두고 여론조사 경선물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면 모르지만 의도적인 것은 누가 승복하고 이해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는 또 “문재인 후보 대세론은 없다”며 “(경선물 바꾼 것은) 문 후보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인 답지 못하다”고도 말했다. 주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 판세에 대해 “중립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안정권에 들었다”며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저조했으나 전국을 돌며 무소속 군수 등 단채장, 도의원 등을 지냈다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지지도가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1등 최고위원이, 박지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3~4등 해도 관계가 없다”면서 “친노 패권주의에 맞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후보는 “당권은 당의 주축인 호남이 가져가고 대권은 영남이나 충청이 가져가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소신이다”면서 “호남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심이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길을 내서 험 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공사와 이해당사자가 만나 대화로 조정을 해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 “당의 미래 위해 국민과·당원 믿고 가겠다”

■ 野경선 박지원 후보 인터뷰 “투표 하루전 경선물 변경 잘못된 행태 바로 잡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지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대표 경선 물 변경에 반발, 경선 보이콧 등 거취를 고심했던 박지원 후보가 사실상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3일 박지원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내 경선 물 변경과 친노(친 노무현) 그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준위의 경선 물 변경과 관련, 거취 문제를 결정했는지. ▲어떻게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물을 바꿀 수 있다. 기가 막힌다. 많은 고민을 했었다. 나에게서는 물론 사무실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내가 사퇴해 버린다면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반칙에 맞서 국민과 당원들을 믿고 당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특정 계파의 전횡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이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문제가 된 경선 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난해 12월29일 확정해서 명문화했다. 당 대표와 대권 주자를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거짓말로 대중

어가서는 안 된다. -경선 물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게 됐다. ▲유불리를 떠나 원칙적인 문제 아닌가. 이미 명문화된 경선 물을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나. ▲경선이 진행되면서 친노의 전횡에 반발하는 모든 당내 세력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됐다. 이러한 동력이 당원들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지자 친노 세력이 당황하게 된 것이다. 결

국, 당황한 친노 세력이 투표 하루 전에 경선 물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내 별명이 진돗개다. 한번 물만 놓지 않는다.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바로 잡겠다.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하면서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특정 계파의 전횡이 반복되는 ‘도로 새정치연합’이 된다. 반면, 박지원이 승리하면 기적되고 변화다. 이런 계파 전횡부터 혁신하지 못하면 국민이 우리 당을 믿겠느냐. 어떻게 수권정당이 되겠나. 혁신과 변화는 박지원의 승

리에서 시작된다. -호남 민심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정한 호남 정치의 복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사태로 나타난 특정 계파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당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번엔 심판하지 못한다면 당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며 수권정당으로 가기 어렵다.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 저의 진심과 당의 미래를 위해 지지를 감히 요청드린다. /임동욱기자 tium@kwangju.co.kr

‘사면초가’ 이완구

삼청교육대·‘황제특강’ 의혹 잇따라

새정치민주연합 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삼청교육대에서 근무한 경력과 6번 강의에 6000만원을 급여로 받은 ‘황제 특강’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부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신고·지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0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특강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이라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과학대학교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광주·전남 유일의 평생직업교육 특성화 대학

꿈을 향해 **일**이어나라!

Wake up!

평생직업교육대학이란?
직무향상과 취·창업전직교육 등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모집대상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재직자, 퇴직자
여성경력단절자, 농어민 등

교육과정

조산(AM12)생산설계과정	구급·응급처치 집중교육과정
선채용접실무과정	맞춤형 힐링댄스 인력양성과정
옥외광고 디자인과정	모래사장 치료사 양성과정
굴삭기운전 실무과정	심리상담 지도사과정
지게차운전 실무과정	다자인 커트과정
유아체육 지도사과정	간호인력양성과정
노인운동 지도사과정	한식조리사 취업반과정
행복통합기능운동 전문인력 양성과정	바리스타 취업반과정
생활체육지도사과정	커피로스팅 과정
골프서비스산업 인력양성과정	요양보호사과정
공연예술과정	농기계교육(식동기술 안전교육)과정
네일아트과정	특산농수산물 가공유통교육과정
피부관리과정	

입학문의 061-270-2515~2519

세계적 수준의 웰빙 특성화 목포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